

그대의 모든 생각은 다 꿈, 허깨비, 물거품, 그림자 같아 이승이나 번갯불처럼 곧 사라지리나. 그대 마땅히 이 같이 보아라.

-글강경-

봉사하는 불교 **심사선원** 02)745-8503
 011)285-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심장선원 041)734-2680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1가 11번길 11
 대안신문사(연선신문) 후원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총무원장의 자격요건

근대 한국불교사에서 최초로 체계를 갖춘 교단이었던 조선불교조계종의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토론회 준비과정에서 발견된 문서 하나가 세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조선불교조계종의 초대 종정을 지낸 방한암 스님이 초대 총무원장(지금의 총무원장)의 자격 요건을 제시한 친필 사본(사진)이 바로 그것이다.

〈현대 한국불교사료〉(1941년)에서 김공식(대각사상연구원) 씨

로가 많되 겸손해야 한다"고 총무원장의 자격 요건을 못박았다. 한 마디로 '대중화합을 잘하면서 불교종회를 이끌 행정 비구'가 총무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말이다. 동시에 최소한 지켜야 할 기본은 이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한암 스님 당시와 비교해 볼 때 한국불교계는 그 동안 엄청난 양적 성장을 거뒀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리는 25개 교구본사 임명권을 통해 2천여 공황과 1만여 스님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동시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자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암 스님이 제시한 총무원장 자격 요건은 당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오늘날 불교계의 지도자급 스님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소임을 임해야 하는지 자신을 비취보는 거울이 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스님들이 지도자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이 다섯 가지 요건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안다. 하지만 일부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스님들이 행정치 못한 파계의 모습으로 불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한암 스님이 제시한 자격요건은 수행자란 어떠한 자를 새삼 가르치는 경책갈기도 하다.

권형진(취재2부 기자)

有始有終 始也 有終 終也 有始有終 始也 有終 終也

一 舍 離 上 等 道 夫 亦 難 求 也
 一 道 德 界 內 亦 難 求 也
 一 持 戒 守 戒 理 亦 難 求 也
 一 持 戒 守 戒 理 亦 難 求 也
 一 持 戒 守 戒 理 亦 難 求 也

가 발견한 이 문서는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된 일제하 종교관련 문서함에 있던 것을 동국대에서 복사해 놓은 자료의 일부다.

〈총본산 종정 산천종원(방한암)의 총무원장 친필에 관한 회담조건〉이라는 친필 문서에서 한암 스님은 '신력(體力)이 견실하여 사업에 유시(유용)해야 하며, 금전상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역경에 처해도 능히 인내할 수 있어야 하며 사리에 명백(명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사에 공



◁암석의 표면을 장식하고 있는 면기과의 대연초인 탈고사리가 다보탑 사면 상부 덮개 곳곳에 뿌리를 내려 부식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아래 사진은 탈고사리를 확대한 모습.

국보 석탑 3기 '식물 훼손'

다보탑-현화식물 관찰... 균열·풍화도 석가탑-다양한 식물군 섞여 자라 감은사 서탑-부재 부식 기반부 파괴

국보인 경주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과 감은사지 서탑이 식물로 인한 심각한 훼손을 겪고 있어 보존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 17일까지 경주시가 (주)리구조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의뢰, 이들 탑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 16일 보고된 것이다. (주)리구조엔지니어링에 의뢰한 3기 모두 식물로 인한 훼손 외에도 침하나 갈라짐 등 구조변형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보탑(국보 20호)은 식물로 인한 훼손의 최종단계에 돌입하는 현화식물이 사면에서 관찰되었고 남쪽 사

면의 상부 덮개에는 어린 소나무, 풍이발, 탈고사리 등이 암석 표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또한 다보탑은 1층 옥개석의 옥석받침과 2층 8각 난간의 간대 및 난간석이 심한 균열과 풍화로 인해 손만 대도 부스러지는 것과 북쪽서 방향으로 약 0.6도 기울어진 사실도 밝혀져 지속적인 관찰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석가탑(국보 21호)은 극지적인 식물훼손이 상당부분 진행됐고 다양한 생물군이 섞여 자라고 있어 처리방안이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또 지반 약화로 기반부 중앙이 내려앉고 양 끝은 솟아올라 각 면과 모서리 탑신

의 면이나 모서리에 흄이 벌어진 것으로 지적됐다.

감은사지 서탑(국보 112호)은 19층이나 되는 뿌리식물이 전체 면에 착생해 탑 표면과 부재와 부분재료가 상당부분 썩어 나갔고 동남부 기반부와 각 층 옥개석에 박락과 밀집 등이 심각한 상태. 또한 바다와 가까운 이 탑은 염분으로 인한 바리 현상이 심각해 풍화가 가장 심한 경우로 지적됐다. 감은사 서탑을 조사한 한 문화재 전문위원은 "서탑의 경우 석탑을 받치고 있는 부재들의 부식으로 인해 기반부의 파괴확률이 99%로 나타나 해체복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10개월 여 동안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사된 보고서 토대로 이달 25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생물학적 보존처리를 포함한 다양한 탐 보존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a.com

진각종 총인 혜일종사 추대

19일 종의회·인의회

불교진각종 제 9대 총인에 혜일종사(전 통리원장) 사간가 추대됐다.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19일 오후 총인원내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327회 정기총회를 열고 종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 인의회(진각종 원로들의 모임)에서 혜일종사를 제9대 총인으로 추대했다.

새 총인으로 추대된 혜일종사는 1934년 초으로 지난 65년 학교법인 위덕학사 감사, 총연부장, 기획부장, 총무부장, 종의회 의원을 지냈고, 79년과 83년 통리원장을 역임



했다. 80년 종의회 의장, 탑주심인당 주교를 지냈으며 삼매야계단 감마야사에 위촉되어 있다. 한편 진각종 종의회는 20일에도 회의를 열고 2002년도 예산과 2001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효암통리원장 취임 후 제도시정에 들어갔던 회당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경숙 기자 gies@buddhapa.com

한·중·일 우호대회 중 베이징 26~30일

한 중 일 3국 불교계가 21세기 세계평화, 환경보존, 문화교류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제 4차 한중일 우호교류대회가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 베이징 천릉왕조호텔에서 세나라 대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평화, 환경, 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류대회는 2002년도 사업에 대해 협의하고, 세계평화기원대회와 불교환경 사진전시회, 국제학술대회, 중국불교협회장 초청

만찬, 주요사찰 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26일 오후 3시에 개최되는 한중일불교교류위원회 회의에서는 △제 5차 교류위원회 개최국 확정 △주요분야 상설분과위 설치운영 및 방안 모색 △한국대표단 일본방문 △일본수행단 한국초청 △한국수행단 중국방문 △2002년 월드컵 성공기원 한일 불교계 역할 등의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27일 오전 10시부터는 천릉왕조호텔에서 '불교와 환경보존'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의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a.com

전화 한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현대불교를 구독하여 주시는 불자들이 많으십니다. 신빙의 동반자 현대불교가 지프용지를 들고 온영에 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10월부터 구독료 자동이체를 실시합니다. 현대불교 구독료로 전화로 신청만 하시면 구독료가 자동으로 납부되어 보다 편리 마음으로 현대불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독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좋은 점
 - 매월 은행을 찾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립니다.
 - 구독료 연체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차한 절약의 효과도 있습니다.
 - 통장에 구독료 납부 내역이 자동 기록되기 때문에 납부확인이 편리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해지 방법
 1. 독자번호(성명,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이체 희망일자를 전화로 알려 주시기면 하면 됩니다.

대상 은행	결제 조건	이체 희망일
농민을 포함한 모든 은행 (11, 05, 06, 07, 08, 09, 10, 12)	예금 잔액이 구독료 보다 적을 경우,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만 납부합니다.	매월 15, 20, 25, 30일

※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해서도 다음달부터 구독료가 자동이체 되므로 신청 당일 구독료는 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및 문의 전화: 02)737-0090, 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장군 죽비

◁조계사 인근 지상 24층 높이 90m 빌딩 건축, 세수 확대만을 노리는 지자체에 압살되는 전통문화. (2면)

◁한국의 어른들, 외국인들의 눈에는 '어글리 코리아', 청소년의 눈에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어른'. (8면)

◁폭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주먹, 몽둥이, 총구에서? 아니다. 인간 내면의 악이 선을 압도할 때이다. (15면)

◁맹신적 일부 기독교도 원주경찰서 경승실 불상 봉안 저지, 예수도 한국에 오면 '못난 어른' 이 되는가 보다. (23면)

4급 승가고시 154명 합격

조계종 25일 수계산림

조계종 제4급 승가고시가 19일 오후 송광사에서 실시돼 바구니 스님 158명의 응시자 중 154명이 합격, 25일 구족계를 받는다.

이날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들은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7일간의 구족계 수계산림 일정에 들어갔으며, 구족계 수계산림은 계본강의 및 독송, 백팔참회, 습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 비구니계 수계식이 봉행된다.

올해부터 비구 비구니를 구분해 실시된 이날 4급 승가고시에 응시한 바구니 스님들은 율학, 사집, 사교, 화엄, 불교학개론, 치문, 조계종사, 불교사, 선학 등의 시험을 치렀다.

한명우 기자 mhwan@buddhapa.com

선학원 28일 분원장 회의

〈제1선학원(이사장 정일)은 26일 오후 2시 충북불교문화회관에서 전국분원장 회의를 열고 지난 조계종 총회에서 안건 처리된 '조계종-선학원 관계정상화 합의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또 재단 현안에 대한 경과보고, 분과토론, 전체회의가 진행된다.

김원우 기자

禪속의 무향 석주·석정 큰스님 禪서화전

불교TV에서는

새로운 영상포교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위성방송 실시를 앞두고

석주·석정큰스님의 붓 끝에서

피어나는 선향으로 "禪속의 무향"전을

마련 했습니다.



● 석주스님(철보사 조침)



● 석정스님(중요부원분회제 제18호)



- 일 시 : 2001.11.14(수)-11.20(화)
- 주 최 : 불교텔레비전 주식회사
- 후 원 : 문화관광부,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명원문화재단, 한국디지털 위성방송(KDB)

■ 장 소 : **경명아트센터**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02-3270-3300 팩스: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청 방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작품구입문의(불교TV사업부)
 02-3270-3366~7